

##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다문화 공간 계획

### - 안산시 반월시화공단 폐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

## Multicultural space planning for the welfare of foreign workers

### - Focusing on the closed facilities in Banwol Shihwa Industrial Complex in Ansan -

정지실<sup>1</sup>

Jeong JiSil<sup>1</sup>

#### 요약

현재 활성화 되는 예술, 문화 공간은 문화와 함께 지역성, 장소성,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인 결과물로의 공간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적 역사성을 가진 폐 산업시설의 활용가치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 의미를 넘어서 더 큰 가능성을 보이며 예술 문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지원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다문화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 산업시설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과 함께 예술 문화공간에 적용 가능한 지역적 특수성을 도출함으로써 활용과 보존을 통한 예술 문화 공간 프로그램과 지역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핵심어:** 외국인 복지, 다문화 공간, 폐 산업시설, 지역 프로그램

#### Abstract

At present, the arts and cultural space has been demanding the space as the active result centered on the locality, the location and the cultural value together with the culture. In this paper, we try to derive program elements for multicultural space based on analysis of welfare support of foreign workers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a target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ulticultural space based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arts and cultural space program and local areas through utilization and preservation by deriving regional specificity applicable to art culture space together with the possibility of new application of waste industrial facilities.

**Keyword:** Foreign welfare, Multicultural space, Closed facility, Local program

<sup>1</sup>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jisil.jeong@kookmin.ac.kr

Received(April 20.2014), Review (June 08.2014), Accepted(June 30.2014)

## 1. 서론

현재 활성화 되는 예술, 문화 공간은 문화와 함께 지역성, 장소성,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인 결과물로의 공간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예술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함께 도모하는 장소적 가치와 함께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지역성, 장소성,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는 그 이상의 가치를 공간으로서 보여주기에 때문에 내, 외부의 이해를 통한 네트워크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2008년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예술 문화 공간은 이제 보다 더 새로운 실험적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적 역사성을 가진 폐 산업시설의 활용가치에 관한 논의와 함께 그 의미를 넘어서 더 큰 가능성을 보이며 예술 문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폐 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은 예술문화 향유를 불러일으키며 문화적 재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예술적 기능 이외의 더 큰 공간 의미로 재해석 된다. 폐 산업시설을 활용함으로 얻어지는 효과는 공간의 구조와 장소의 독특한 지역적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통합과 소통, 재생의 가치구현으로, 산업시설이 갖는 시대적-문화적 가치를 불러일으키며 지역사회, 시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과정의 공간이 됨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지원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다문화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폐산업시설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과 함께 예술 문화공간에 적용 가능한 지역적 특수성을 도출함으로써 활용과 보존을 통한 예술 문화 공간 프로그램과 지역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외국인 근로자의 의미와 관계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용어는 영어로 Immigrant Worker 독일어로는 Gastarbeiter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민(Immigrant)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생기는 이주적인 인구이동을 일컫는다. 그러나 이에 근대 이전의 노예무역에 의한 강제 이민이나 일시적인 계절적인 이동, 유학, 관광 등 특정 목적으로 외국에 체제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 노동기구(ILO)는 협약 제97호와 제143호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을 목적으로 자신의 국적 이외의 다른 나라에 이동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합법적으로 입국이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고 한정하고 있다. 즉 여기서는 국경근로자, 자유직업종사자 및 예술가의 단기간 입국, 훈련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입국하는 자, 단체나 기업의 요청으로 특별한 임무나 업무를 위해 장기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1-3]. 이러한 이주 행위 및 이주 노동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한 개인의 노동에 대한 욕구와 권리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현대에 이르러 일에 대한 욕구와 권리를 찾고자,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넘어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이주 노동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듯 이주 노동은 한 개인의 욕구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영향력은 자신이 속한 본국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까지 연결된다. 즉 이주 노동을 통해 들어오는 외화와 기술력은 좁게는 개인의 의식주와 관계되며, 넓게는 본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연관이 있다. 나아가 이주 과정의 송출국과 수입국 사이의 사회조직이나 문화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때로는 정치적 경계를 넘나들며 법적, 국제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이다. 이는 국가와 국가 간의 우호 관계 및 국제 사회에서 한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주 노동은 단순히 주거의 물리적인 이동만이 아니며, 개인 및 집단의 이동에 부수하여 따라가는 정치, 경제, 인문,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총합된 ‘총체적인 사회’이며, 이와 관련된 외국인 근로자 또한 단순히 생산 능력만을 지닌 노동력만이 아닌 총체적 사회 현상을 담당하는 ‘문화 담당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3. 외국인 근로자 복지 지원의 한계점

현재 정부 주도 혹은 민간, 시민 단체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시설과 정책은 프로그램이나 시설 현황면에서 상당부분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원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 민간, 시민단체의 경우 재정 지원을 전적으로 기업, 개인, 지역 주민들의 기부금이나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에 지원대상이나 지원 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주 노동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근로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한국 사회에 통합되거나 융화되어 한국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시민 단체 지원 사이에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파악

하여 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더불어 지원 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념과 이념 하에서 이들을 상호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4,5]. 그리고 민간, 시민 단체는 각각의 활동이념과 경험에 맞게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화 하되, 특히 문화 및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 통합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원 프로그램의 획일성 및 일회성을 들 수 있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지원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프로그램과 근로자의 라이프 사이클이 맞지 않아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시간대에 지원 단체를 이용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하며 지역주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문화적 융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다문화 공간 계획

### 4.1 대상지 분석

#### 4.1.1 대상지 현황

반월.시화 산업단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에 기반하여 경제 개발 2차 사업(1962-1971)년도부터 반월.시화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고 공업화를 추진하여 서해안 공업벨트를 구축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단지로서 그 규모가 31,817천m<sup>2</sup>에 이르는 대규모 산업단지이다. 애초반월 공업단지의 배후 도시이자 20만 인구가 살 수 있는 신도시로 설계되었던 안산시 역시 이후고잔동 등을 중심으로 한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2013년 3월말 기준 거주 외국인이 54,959명(안산시 통계 자료,2013)으로 국내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기계 및 전자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수도권 최대 국가 산업단지인 반월 및 시화국가산업단지에 2011년 12월말 기준 약 14800업체(한국 산업 단지 공단, 2013)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인근 지역에 정착한 원인이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이면에는 산업정책에 의해 입안되고 조성된 산업단지이기는 하나, 특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조성한 산업단지가 아닌 경제 정책의 부산물로서 수도권 정비계획의 이행과 기반산업의 유지 필요성에 의해 불가피하게 조성된 산업단지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태생적인 환경적

문제요인과 더불어 여타 국가산업단지가 가지는 특정한 산업영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다양한 업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입지적 특성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월 시화산업단지는 한계점에 직면하고 있고 산업구조 변화의 전환점에 서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망과 대안 역시 역동적으로 모색되면서 지금의 안산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반월시화공업단지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절대적인 부족과 시화호오염 그리고 수많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안산시는 한편으로는 서해안지역 발전의 중심 도시로,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생태 문화 도시로, 외국인 노동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 4.1.2 입지 여건

반월 시화 공업단지는 수도권 서부지역에 위치한 광역교통의 결절지로서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서 남서 측으로 반경 20km 지역에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로 수도권에서는 서부지역에 해당한다. 북서 측으로는 인천광역시, 동측으로는 수원시, 남측으로는 화성시와 인접하고 있으며, 시화호 해수면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접근이 용이하며 건설 예정인 제3경인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평택~시흥간 민자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허브로 급부상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화 MTV, 송산그린시티, 송도신도시, 군자지구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광역교통의 집결지이며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허브로 급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국가경제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인접한 주변지역에서는 시화MTV, 송산그린시티(이상 반월특수구역), 송도신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및 신항만 등의 물류기반 시설 이용이 용이하여, 명실상부한 국가경제의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다[3].

#### 4.1.3 산업 환경 분석

산업에 있어서 서해안 제조업과 동서축 첨단산업이 교차하는 산업 중심지로서 서울(디지털단지)~광명~화성(남양)~평택(포승공단)을 연결하는 서해안 제조산업벨트와, 인천송도~수원~화성(동탄)~용인~이천을 연결 하는 동서축 첨단산업벨트의 교차지역으로 수도권을 대표하는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반월, 시화단지는 인천-화성-평택을 연결하는 서해안 주력 기간 산업벨트와

인천송도-수원-화성-용인-이천을 연결하는 동서축 지식기반제조벨트가 교차하는 산업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주, 시흥, 안산, 수원, 화성, 아산으로 이어지는 국내 최대의 IT, LCD, 반도체 PCB,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등 수요 대기업과 연계되는 부품소재 산업의 최대 공급기지이다[6,7].

#### 4.1.4 주변 환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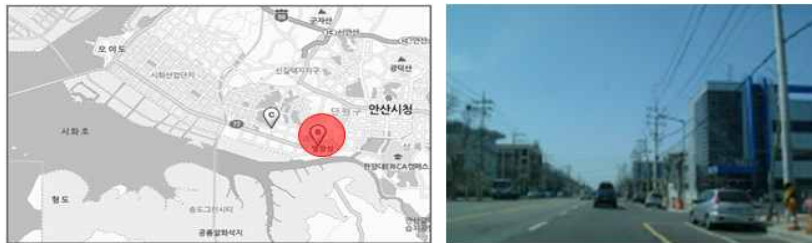
주거지경관은 안산시 1단계 개발지역과 단원구 고잔동, 상록구 사동 일대의 신도시와 2단계지역으로 구분되며 안산시 1단계 지역은 노후화된 단독 및 연립주택지역, 아파트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역의 정비계획이 요구된다. 계획도시 안산의 주거지는 크게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로 구분할 수 있고 단독주택지에서는 좁은 도로 내의 주차문제, 공원 이외의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인공적인 경관요소가 주를 이루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반월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 기능을 하는 신길동, 원곡동 일대는 노후율이 높아 전면적인 정비사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지는 1단계 개발지역과 2단계 개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단계 지역의 경우 복도형, 판상형, 일자형 배치로 인해 가로에서 주거지 조망시 획일적이고 무개성한 경관특성을 보인다. 2단계 지역 공동주택지의 경우 아파트면의 형태, 지붕형태 등에 있어서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단조로운 색채구성 등으로 인해 단지별 특성이 부족하고, 고층 건축물에 의한 조망 차폐도가 높은 문제점을 보인다. 상업지역의 면적은 넓지 않으나 대부분 간선도로에 면하고 있으며, 도시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안산시의 상업지역은 위치 및 성격에 따라 광덕대로를 중심으로 위치하는 중심상업지역과 중앙대로를 따라 위치하는 전철 역세권의 상업지역, 그리고 아파트 주거지 내의상업지역으로 위치하고 있다. 안산시 서남부 일대를 차지하는 산업시설은 기존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새롭게 매립지에 조성되는 시화국가산업단지로 형성된 대단위의 면적 경관시설로 안산시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첨단도시 이미지의 부각이 요구된다.

## 4.2 대지 선정

### 4.2.1 계획 대지

계획 대지는 안산시 반월공단 염색 공장단지 내에 있는 별망성지 일대이다. 이 지역은 내적으로 과거 일제식민지의 경험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식민지의 근대성에 대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서해안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일제시대 미곡을 실어 나르던 대표적인 항구 도시

였고 반면 이러한 왜적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 곳의 얇은 산봉우리를 서로 연결하여 돌로 쌓아 만든 해안산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산성의 의미는 동시에 대지를 고립시키는 현상을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도시의 흐름을 연장선상으로 바라본 이 장소는 반월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주변 블록에는 염색 공장이 즐비하게 있으며 실업 공단들을 접하고 있다. 전방에 별망성 공원과 전망대공원의 구릉지가 조망되나 단조롭고 활력 없는 거리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그림1] 계획 대지

[Fig 1] Planning site

### 4.3 공간 계획 개요

#### 4.3.1 다문화 공간의 전제

본고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한 문화공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의 실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제 사항을 두고 공간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첫째, '결합과 융합의 재생성 공간'의 개념으로 기존 폐산업단지 공간에 새로운 이질적 요소를 결합시킴으로서 하나의 새로운 재창조, 어울림 공간으로 재생 시킨다. 기존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분으로 첨가하는 방법으로 주로 부분적 대비적인 요소가 강하며 기능적인 요소를 부여한다. 새로운 요소가 구조적으로 독립 구조체를 이루어 형태적, 재료적 측면에서 기존의 요소와 대비를 이루어 공간적 증축이 용이하다. 즉 기존 폐 산업시설의 버려진 컨테이너를 구조물을 활용해 또 다른 기능과 형태로 재사용이 가능하게 한다. 즉 기존의 시설물들이 수직적으로 적층되거나 단일 주제별로 분리되는 방식을 단일성을 지양하고 확장용 유닛방식인 MDU방식을 사용하여 건물을 변형시켜 전혀 새로운 확장된 공간을 창조한다. 또한 숨겨진 기본적 기반시설 외에 빈공간을 두어 다시 다른 형태로 재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각기 다른 재료의 조립과 해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다문화 통합을 위한 복지 공간'의 개념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문화적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흥미와 요구를 중심으로 계획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할 때 가족들의 연령층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여유시간을 배려한 자율적 복지 문화공간을 제시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홈리스들을 고려한 다양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셋째, '지역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개념으로 지역 사회 안에서 내국인이거나 이주민 모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타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또한 같은 기능을 하는 공간끼리 인접해 있으므로 해서 서로간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고 커뮤니티의 활발한 공간을 계획 한다. 공간은 수평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구성 방식으로서 바닥면의 레일을 이용하여 단일유닛 형태 의 컨테이너를 움직일 수 있게 한다. 그로 인해 평면상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전시공간의 활용성을 높여준다. 또한 사람의 동선을 최소화하여 전시관으로서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 4.4 공간 계획

### 4.4.1 공간구성계획

공간 구성 계획은 그림 2와 같다.

### 4.4.2 프로그램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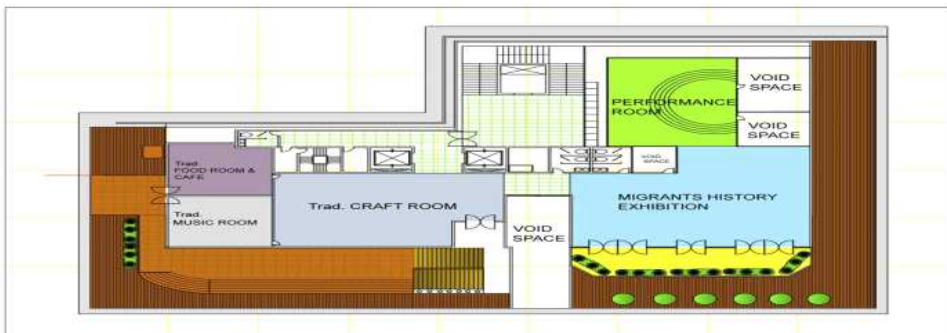
다문화사회 안에서 문화공간은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을 만들어낸다. 개개인의 삶을 매트릭스 구조 안에 넣으면 생겨나는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진 선을 통해 3차원의 공간 속에서 과거와 미래, 지역과 지역, 사람과 존재가 연출해 놓은 온갖 커뮤니티의 각기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문화 공간은 이러한 매트릭스 시스템의 중추기관으로서 개인의 정체성이 민족, 계급, 종교, 공동체, 국가 같은 여러 변수의 복잡한 경계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게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민속적인 자국의 전통성을 표출하고 다문화를 형성하는 내면의 이야기를 전시나 체험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어 낸다. 즉 당시의 작품들을 재현하고

설치함으로써 고대의 모티브들을 만날 수 있게 하며 그에게 영향을 받은 현대의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발견하게 하는 것이 다문화 공간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Cultural Space 1층 평면도>



<Cultural Space 2층 평면도>



[그림 2] 다문화 공간 조감도

[Fig 2] Aerial view of a multicultural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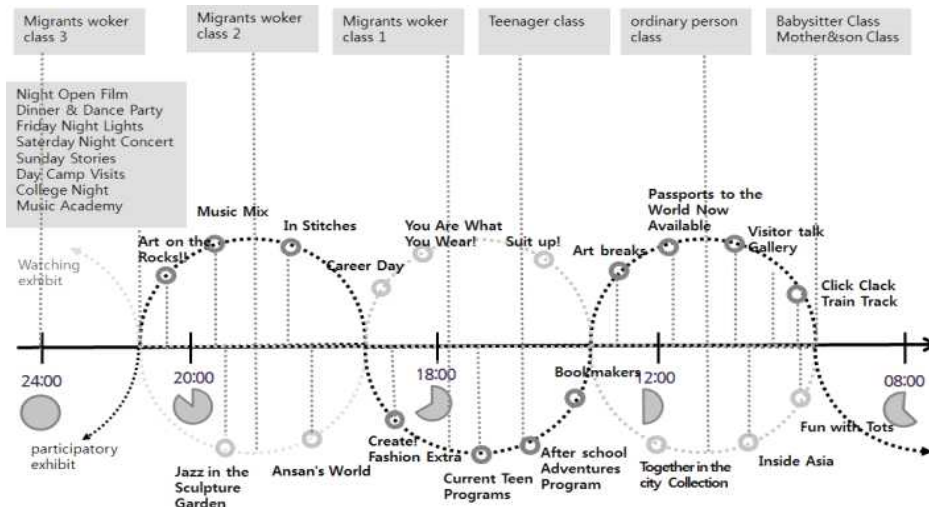
#### 4.4.2.1 Program concept

[표 1] 프로그램 컨셉

[Table 1] Program Concept

|                                                  |                                                                                                                                                                                                                                                                                                                                                                                                                                                                                                                                                                                                                                                                        |
|--------------------------------------------------|------------------------------------------------------------------------------------------------------------------------------------------------------------------------------------------------------------------------------------------------------------------------------------------------------------------------------------------------------------------------------------------------------------------------------------------------------------------------------------------------------------------------------------------------------------------------------------------------------------------------------------------------------------------------|
| <p>1) 별망성<br/>(Creation Tower)</p>               | <p>조선시대의 망루였던 별망성은 역사적인 공간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거리를 장소가 갖고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별망성은 하나의 보이드를 가진 테두리이며, 문화공간은 그 보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즉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일상을 잊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마치 몸을 씻듯 스스로 문화를 체험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듯한 느낌으로 그 안으로 하나의 선을 만들어 관람자들은 그 빛을 따라가는 체험을 유도한다. 또한 허물어진 산성이 갖는 역사의 기억을 이용하여 주진입로로 채택하고 이 어둠의 상징체계 다음에 빛나는 공간을 개입시켜 그 배후에 호수를 평화로운 정경으로 수용하게 된다. 진입로를 이용하여 시화호까지 연결되는 Market street를 조성하여 재생용품 판매 및 이벤트 전시를 실시한다. 배후에 있는 시화호는 산업단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환경오염과 싸워야 했던 안산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함께 하는 의미 있는 곳이므로 환경과 생태적인 것을 고려한 문화공간이 될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폐기물들(자동차부품, 염색재료등)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들어 전시를 시도한다. 별망성지의 해안산성은 그대로 보존하되 지역적 상징으로서 역사적 과정을 제시해 주는 전시 형태가 될 것이다.</p> |
| <p>2) 폐산업 공장<br/>(Cultural Space)</p>            | <p>계획대지가 과거의 염색공단 지역에 접해 있어 염색 단지와 연계한 패션 전시 공간이 가능하다. 여기서 공단이라는 지역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여러 공장들과 연장선상에 놓여져서 사이트에서 확장적인 시선을 바라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염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험프로그램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종사자(재능기부자)와 문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 발생적 자치 프로그램을 형성한다. 수평 수직으로 유동적인 확장의 가능성을 가진 작업장 프로그램 사이에 삽입된 공용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마련한다. 이로써 각 작업장과 그들의 클러스터는 문화 자극적 환경 속에 자리하게 되고 작업 활동에 필요한 가상적 공간을 풍부하게 가지게 된다. 이는 지역 커뮤니티로 확대 발전되며 다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국제도시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다문화 공간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p>                                                                                                                                                    |
| <p>3) N.I.C<br/>(Network Information Center)</p> | <p>계획대지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문화공간(리트머스공간, 국경없는마을, 경기도미술관, 예술의전당, 안산문화원, 단원전시관, 안산문화원등)의 집결지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정보 교환, 프로그램교환과 재정지원에 있어서 상호협조체계를 이룬다. 문화 인프라들 간의 기능적인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화 되어있는 통합적 구조 시스템을 가진다. 이것은 다양한 기능과 규모를 가지는 문화적 요소들 사이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주민을 위한 복지도서관을 설치하여 복지와 관련된 정보들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p>                                                                                                                                                                                                                                                                                                                                                                |

#### 4.4.2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그림 3] 다문화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Fig 3] Diagram of multicultural programs

## 5. 맺는말

이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폐산업시설의 문화적 재생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한계는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 프로젝트가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복지 사회를 향한 작은 상상력이 현실화 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이러한 희망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자발적 동기와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즉, 이질적 문화와 언어, 국적, 성별, 장애등의 차이에 대한 통합과 소통 그리고 재생이라는 가치 구현으로 다양한 지역 사회 구성원의 공존 및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 적응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외계층의 사회적응이나 복지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다문화 정책이나 복지 지원책이 외국인 근로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주체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민족적 정체성을 되찾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때에 결과적으로는 한국문화를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Reference

- [1] G.S. Seo, A Study on Welfare Provisions for Migrant Workers,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2008)
- [2] H.D. Kim, A Study of Migrant Worker welfar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02)
- [3] H.S Yun,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in Korea and Suggestion Social Welfare Service,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2005)
- [4] S.H. Oh, A Design of Seongsu-Dong Migrant Workers Culture Factory as Social Border's Breaker,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8)
- [5] H.S Shin, Local Community-Oriented Instructional Model for Social Studies to Cultivate World Citizenship: -the case of a borderless village for migrant workers in Ansa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7)
- [6] H.B. Kim, A Study for Sustainable Eco-Industrial Park Conversion of Banwol-Shiwa Industrial Complex -Efficient use of Resources through Recycle & Reus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8)
- [7] M.J. Ju, The Current State and Prospects of Korea's Eco-Industrial Park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0)